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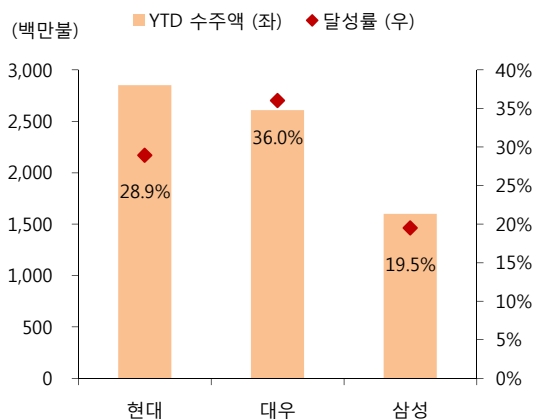
- ✓ 연초 이후 4월 말까지 한국 조선사 수주 달성률은 27.9%
- ✓ 하절기 상선 발주 감소를 감안하면 해양플랜트가 필요한 상황
- ✓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바로사 기본설계 수주는 호재

한국 조선사의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해양플랜트가 필요함

연초 이후 4월 말까지 누적 신규 수주액 기준으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은 28.9%, 대우조선해양 36%, 삼성중공업 19.5%의 수주 달성률을 기록했다. 3사 합산으로 보면 약 27.9%의 달성률이다. 이는 지난 달 현대상선이 발주하기로 한 3조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물량이 배제된 것이다. 해당 물량을 더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 달성률은 약 39%에 달한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CMA CGM 이 발주할 물량을 포함해 컨테이너선 수주가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으레 여름은 그리스 선주들이 긴 휴가를 떠나기에 하반기 상선 수주량은 상반기 수주량보다 적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해양플랜트와 같은 굵직한 수주가 필요하다.

마침 삼성중공업이 호주 바로사 해양플랜트의 기본설계업체로 선정되며 하반기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물론 최근 섹코 프마린과 중국 조선사가 고부가 선종 시장에서도 선전하며 전체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지만, 적은 물량이라도 수주가 가능하다면 한국 조선사 추가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은 호재라는 판단이다.

한국 조선사의 수주 달성률



해양플랜트 수주 가능성을 높인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호주의 바로사 해양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삼성중공업이 호주의 바로사 해양플랜트 기본설계를 맡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23일 글로벌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바로사 해양플랜트 기본설계를 진행할 회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엔지니어링회사 테크닉 FMC와 컨소시엄을 이뤄 기본설계 입찰에 참여했다... (중략) ...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회사가 해양플랜트를 수주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삼성중공업은 향후 바로사 해양플랜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2018-05-23, 비즈니스포스트

자료 : 각 사(현대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함), SK 증권

자료 : 비즈니스포스트,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